

드라마 시트콤은 세대교체 중?



MBC 간판 예능 '무한도전' 31일 종영

새 판 구상... 기존 멤버 설득 중

2006년부터 방송해온 MBC TV 간판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오는 31일 종영한다.

MBC 예능국의 권석 본부장은 7일 서울 마포구 삼양동 MBC에서 열린 '전 지적 잠깐 시집' 제작발표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무한도전'은 오는 31일 종영하고, 새 판을 짜고 있다. 새 방송은 최형호 PD가 맡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가 원하는 건 기존 멤버들이 다 같이 가는 것인데, 다들 생각이 다르니까 계속 논의 중이다. 멤버들끼리 논의하면서 결정이 날 것 같다"고 전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방송의 형태와 출연진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고 권 본 부장은 밝혔다.

그는 당장 4월부터 새 방송을 시작하느냐는 물음에 "모양새는 안 정해졌다. 시즌2로 할 수도, 아예 다른 모양새로 갈 수도 있다. 김태호 PD가 원하는 시즌 2는 SBS TV '런닝맨'이나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처럼 쉬었다 가는 것인데 그것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출연진과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 계속 논의 중이고 플랜 A, B도 있다.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며 "31일 이후 편성도 정해진 바 없다. 시청자의 관심이 많고 충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라 저희도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론,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회식 무대 오른다

'고 투마로' '꿈따리 사바라' 선보여

남성듀오 클론(강원래, 구준엽)이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회식 무대에 선다.

7일 소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클론은 9일 밤 8시 평창올림픽 피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 20주년 기념 앨범 수록곡 '고 투마로'(Go Tomorrow)와 대표곡 '꿈따리 사바라'를 선보인다.

1996년 1집 '아 유 레디?'(Are You Ready?)로 데뷔한 이들은 '꿈따리 사바라', '난', '도시 탈출', '돌아와', '초련'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내고 대만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한류 스타로 떠올랐다.

그러나 2000년 4집을 발표한 뒤 강원래가 불의의 오토바이 사고로 허반신이 마비되며 활동이 중단됐다. 팀을 해체하지 않은 이들은 2005년 5집으로 컴백해 휠체어 댄스를 선보였으며 지난해 6월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 '위 아'(We Are)를 발표했다.

'시트콤의 대가' 김병욱 PD가 3년 만에 내놓은 신작 '너의 등짝에 스매싱'이 평균 시청률이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내놓고 지난 1일 퇴장했다.

중편채널 중에서도 약체인 TV조선에서 방송돼 '재널 탕'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작품 자체의 힘도 떨어졌다. 그런 가운데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와 MBN '연남동 539'가 그나마 1~2%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트콤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폭발력은 없으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이러한 흐름을 두고 시트콤이 현재 세대교체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새로운 없었던 '너의 등짝에 스매싱' '너의 등짝에 스매싱'은 '순풍 산부인과'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거침없이 하이킴' '지붕 뚫고 하이킴' '하이킴! 짧은 다리의 역습' 등을 통해 국내 시트콤 전성기를 이끌었던 김병욱 PD의 신작이라 방송가 안팎의 관심이 컸다.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순풍 산부인과'(1998~2000)까지 가지 않더라도, '거침없이 하이킴'(2006~2007)과 '지붕뚫고 하이킴'(2009~2010)으로 각각 24.2%와 27.6%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김 PD다.

하지만 '너의 등짝에 스매싱'은 지난해 12월4일 첫회에서 1.333%를 기록한 이후, 50부가 방송되는 동안 0.2%대까지 시청률이 추락하는 등 0.5%가 힘겨운 상황을 이어갔다. 대다수 케이블 프로그램이 시청률 1%를 넘기기 힘들지만, 대대적인 관심 속에 출발한 작품으로서는 극심한 굴욕이다.

젊은층이 선호하지 않는 TV조선에서 방송된다는 약점이 컸으나 그것만이 패인은 아니었다. '너의 등짝에 스매

김병욱표 시트콤 '...스매싱' 시청률 저조

'순풍' '하이킴' 기시감에 특이점 없어

'으라차차 와이키키' '연남동 539' 등

캐릭터 위주 청춘 시트콤·웬만해선 인기

김 PD의 전작을 답습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박영규, 박해미 등이 맡은 캐릭터가 '순풍산부인과', '거침없이 하이킴'에서와 달라지지 않았고, 에피소드 역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익숙한 느낌 속 새로움이 없었다. 막판 5회는 이렇다 할 설명 없이 급하게 결연을 내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해 아쉬움을 줬다.

한 방송 관계자는 "너의 등짝에 스매싱"은 옛날 그대로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느낌이었다. 캐릭터에 변화가 없었다고, 특이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 시트콤인 듯, 시트콤 아닌, 시트콤 같은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는 시트콤이라는 타이틀을 거부한다. 하지만 방송가에서는 이 드라마를 시트콤으로 본다. 캐릭터들이 살아있고 에피소드 위주로 이야기가 구성되며 웃음에 포인트를 준다는 점이 그러하다. 특히 청춘층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청춘 시트콤'의 계보를 잇는 듯하다.

폭소를 유발하는 소동극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최근 시청률 2%를 넘긴 '으라차차 와이키키'는 JTBC 월화극 라인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4회 연장이 결정됐다.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김정현, 이이경, 손승원 등 떠오르는 신예들

을 내세운 파릇파릇한 분위기 속에서 확실한 캐릭터, 길 걸릴 수 있는 황당한 에피소드로 시청자가 시트콤에 기대하는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시청률이 이제 겨우 2%를 넘겼지만, 광고주들이 주목하는 20~40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으라차차 와이키키'가 게스트하우스를 무대로 한다면, MBN '연남동 539'는 세어하우스를 무대로 한다. 각기 다른 사연과 상황에 처한 인물들이 한곳에 모여 살며 때때로 현실감 넘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시청률이 1%를 넘여 왔다. 이문식, 오윤아, 이종혁, 브라이언, 고나은 등이 만들어내는 소동극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 웬만해선 공세에 설 자리 좁아져 시트콤의 모미는 치고 빠지는 재미, 현실의 실시간 풍자 등에 있다. 개연성 높은 에피소드를 통해 현실감을 높이며 웃음을 쥐어 주고, 큰 줄기의 드라마도 놓치지 않아 한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공정을 거쳐야 한다. 국내 시트콤의 쇠퇴에는 이러한 시트콤을 요할만한 인력이 부족한 점도 컸다.

웬만해선의 공세 역시 시트콤의 설 자리를 좁게 만들었다.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웬만해선이 시트콤의 주 소비층인 젊은층을 사로잡고 있고, 웃음의 강도와 종류 역시 웬만해선이 방송보다 훨씬 다양하고 세기 때문이다. 모바일에서 5분, 10분짜리 짧고 가벼운 콘텐츠를 보는 것에 익숙해진 젊은층은 더이상 기존 문법대로 만들어진 '구식' 시트콤을 참고 보지 않는다.

김정열 SBS 드라마본부장은 "과거 '야동 순재'처럼 발칙하고 독특한 캐릭터, 재미있는 캐릭터로 무장하는 것은 필수이고 거기에 젊은층을 사로잡을 새로운 포인트를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TV 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주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아시아의 전통시장 스페셜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4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추리의 여왕 시즌 2(재)	5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UHD 한식의 마음	55 인형의 집(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00 12 MBC 뉴스 20 밤상 차리는 남자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토크보통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가드	55 생생정보 스페셜	30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패럴림픽 D-1 콘서트	55 닥터 365
2	20 안녕! 괴물개발 시즌2 50 감성톤 고맙습니다 스페셜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40 똑?똑! 키즈쿨	00 뉴스브리핑
3	0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재)	20 TV 유치원 50 KBS 재난방송센터	10 에어로버 40 발칙한 동거 반방 있음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겨울방학특선 생명탐사, 지구로의 여정 55 지식 토크쇼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0 팔도탐상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느릿느릿 나무늘보 놀 15 태닝메가드 R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00 5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애 웬수들 (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나눔의 행복, 기부 55 UHD 한식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집사부일체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토크쇼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추리의 여왕 시즌 2(재)	55 세상기록 48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40 글로벌 다큐멘터리 블루 플래닛 8부작			
10	35 KBS 뉴스라인	00 추리의 여왕 시즌 2	00 다시만나는 하얀거탑 UHD	00 리턴
11	05 ABCU 다큐 교황회의 특집 CCTV 끼리의 신년맞이	10 해피투게더	10 MBC 스페셜	10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2부
12	05 특별기획 미래 100년, 유라시아를 가다	4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0 MBC 다큐프라임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황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모란봉악단)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살아있는 자국을 만나다, 뉴질랜드 빙하의 속살을 걷다, 남섬) 07:00 라인보우 루비 07:30 띠피뽀 띠피뽀(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2 08:30 중동탐험대 고고다이노(재) 08:45 수학이 마호 09:00 뚝딱맨	09:15 두다다쿵 09:30 물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얼큰 숙주우동)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3:00 지식채널e 13:10 장수의 비밀 (저 푸른 초드 위에) 13:40 다크시선 14:30 라인보우 루비
15:00 호기심 소녀 도트.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랜즈더러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16:30 뽀롱뽀롱 뽀로로 16:45 뽀롱뽀롱 유치원 1~2(재) 1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4 19:00 사이언스타 Q (센서보드로 영상을 만들이라) 19:30 EBS 뉴스 19:50 엄마를 찾자(재)	20:40 세계테마기행 <인도차이나 반도 미식기행 4부 먹고 사랑하고 행복하라> 21:30 한국기행 <소확행 하산가요? 4부 좋은데 이유가 있나?> 21:50 다크시선 <1920년, 간도>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EBS 스페이스 공감 <그대라는 파노라마 소란 X 오연> 24:05 지식채널e 25:10 과학 다크-비전(Beyon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8일(음 1월 21일 己亥)

子	48년생 사시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라. 60년생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핵심을 벗어나지 말라. 72년생 자신이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었다. 84년생 시시각각 변하는 위상이니 진중환 판단이 요구 된다. 행운의 숫자 : 98, 29	午	42년생 치열함의 강도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54년생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방심하기 쉬운 밤이다. 66년생 가 보아만 남들 할 수 있을 것이다. 78년생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면 처리가 용이 하다. 90년생 조건에 따른 변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60, 12
丑	49년생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된다. 61년생 할 일이 밀려 있으니 일찍부터 서둘러야겠다. 73년생 오랫동안 우려해 왔던 바가 거의 유사한 실제 상황으로 발생하겠다. 85년생 무기치한다면 거의 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으니라. 행운의 숫자 : 04, 57	未	43년생 원하던 단계에 이르게 된다. 55년생 확실한 변별력이 절실하다. 67년생 의심스런 인연이니 경계심을 버리지 말라. 79년생 선별된 언어 구사를 하는 것이 맞다. 91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미를 찾게 된다. 행운의 숫자 : 96, 34
寅	50년생 계속 진행한다면 탄력을 받으면서 일취월장하리라. 62년생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74년생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니 지켜보고만 있으면 된다. 86년생 변동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라. 행운의 숫자 : 29, 42	申	44년생 모색하다보면 숙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56년생 혼신의 힘을倾注한다면 분명히 극복되리라. 68년생 근일부터 해결해야 바로 잡을 수 있겠다. 80년생 순조로움을 타고 힘차게 진행되는 도량이 펼쳐지겠다. 행운의 숫자 : 09, 82
卯	51년생 희구한다면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63년생 마음을 비우고 임한다면 난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느니라. 75년생 미흡하더라도 일단락을 짓고 볼 일이다. 87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뒤따라 생기기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9, 77	酉	45년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7년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요령이 긴요하다. 69년생 고집적인 병폐를 명쾌하게 해결하는 기쁨이 있다. 81년생 일관성이 있었다면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케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5, 30
辰	52년생 불확실성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행하라. 64년생 선길후흉 할 수이니 방심하지 말고 유종의미를 거두도록 하자. 76년생 전례에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 88년생 공동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부심하겠다. 행운의 숫자 : 40, 63	戌	46년생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58년생 행운이 따르리라. 70년생 활로 개척을 모색했을 때 고민은 쉽게 풀리게 되어 있다. 82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의를 우선시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4, 17
巳	53년생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이다. 65년생 적극성을 단다면 훌륭한 성과가 기대된다. 77년생 공명정대한 자세로 당당하게 입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89년생 변동하게 될 것이니 차분하게 지켜봐도 관찮다. 행운의 숫자 : 59, 46	亥	47년생 혼동되지 않도록 체계를 잡아서 처리해야겠다. 59년생 약간만 활용해도 편안한 결과를 날기에 충분하리라. 71년생 과정에 공을 들여야 특이 되리라. 83년생 기본적인 사항에 충실한다면 후환을 면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9, 2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